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Discipline Style and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Preschooler's Leadership

김경숙(Kim, Kyung Sook)* · 양미경(Yang, MI Kyung)**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5세 유아 18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 리더십과 정서조절전략, 어머니의 훈육방식을 조사하여 집단간 차이분석, 상관분석과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가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리더십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주도성과 의사결정 능력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생순위 따른 리더십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보다 더 우수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주도성에서 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 모의 유아가 고졸 이하의 모보다 의사결정능력에서 더 우수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셋째,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 리더십간에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리더십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공격전략, 감정발산전략, 무전략을 사용하는 유아일수록 더 약한 리더십을 보이며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더 강한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유아 정서조절전략과 유아성별이 포함된 회귀모형이 유아 리더십을 의미있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들 변인이 유아 리더십의 약 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훈육방식, 유아정서조절전략, 유아리더십

* 제1저자: 전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mkyang@cd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가 한 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세계 각국이 경제적·기술적으로 첨예한 무한 경쟁하고 있는 다원적이고 정보화된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주요 목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의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고 리더십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유아들이 또래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유아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장영숙, 황운세, 2009).

리더십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Goleman과 Mckee(2002)는 리더십을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Gardner(2007)는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리더십을 보았다.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김민선(2004)은 리더십을 또래 집단에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유아들은 성장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에서 타인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해감에 따라 보다 성숙한 형태의 리더십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박연경과 황혜정(2009)은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며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유아 리더십을 보았고 서기남(2009)은 리더십을 유아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능력으로 또래 집단 내에서는 타인과 함께 융화하면서 집단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유아 리더십을 유아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또래집단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Michell(1997)에 의하면 리더십이 매우 어린 시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며, 유아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고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또래집단 내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다(김성숙, 2008; 박연경외, 2009). 리더십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적 배경,

능력, 흥미, 거주지, 성격, 연령, 성, 외모, 기질, 형제관계, 언어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인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문혁준, 2010) 있는데 특히, 유아 리더십과 관련하여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훈육태도 등이 영향력 있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유아 리더십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김기영(2005), 김진혜(2009), 서기남(2009), 문혁준(2010), 그리고 박성아(2010)는 대체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유아 리더십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 유아 리더십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한 연구들(유연일, 현은자, 2004; 박미숙, 2008)도 있으며 김복희(2006)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유아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혁준(2010)은 성별에 따른 유아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성(gender)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성은 문화적으로 보편적이며 개인적 특성인 동시에 성별 자체가 개인의 발달에 있어 환경과 독특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 리더십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는데 김기영(2005)의 연구에 따르면 형제아(첫째, 둘째)가 외동아보다 유아 리더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성격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 리더십의 다양한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숙할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되는 가장 지속적인 인간관계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의사소통하고 이러한 부모의 기대는 다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동희, 2003). 특히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나 훈육방식은 유아기에 그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Patterson et al., 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 리더십과의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 리더십의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된다. 나미순(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 리더십 유무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부정적일수록 자녀의 리더십에 도움을 주지 못할 확률이 높았으며, 박미숙(2008)은 유아 리더십은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정적상관이 있고, 거부적 양육태도와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순자(2001)의 연구에서도 가정 환경 변인과 리더십의 관계를 분석한 후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이은미(2006)는 유아를 리더그룹과 비 리더그룹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바 있어 부모가 유아의 리더십 발달에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리더십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서기남(2009)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자극 추구 행동을 하는 유아들은 상황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며, 또한 주의가 산만하고 반응이 강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다른 또래의 활동을 방해하여 또래 간에 갈등을 자주 빚는 등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게 되므로 리더가 되기보다 고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김기영(2005)은 리더십이 강할수록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은 유아가 정서 유발 상황에서 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대처행동이나 표현(서혜린, 이영, 2008)으로, 유아 초기에 습득된 올바른 정서조절전략은 개인의 적응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rrett & Gross, 2001). 따라서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유아의 리더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 유아 리더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유아의 특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들 연구들은 어머니의 훈육방식이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각각의 영향력만 다루었을 뿐, 유아 리더십에 있어서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유아 리더십의 차이와 이들 변인들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유아기의 리더십 경험이 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고 후기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기초가 되므로, 미래사회의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리더십을 가진 유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리더십은 유아 특성(성별, 출생순위) 및 어머니 특성(학력, 취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 리더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유아의 일반적 특성(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특성(학력, 취업),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8개 보육기관의 13개 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만5세 유아 총 180명과 그들의 어머니 180명, 그리고 유아의 담임교사 13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 어머니, 그리고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97명(53.9%), 여아가 83명(46.1%)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95명(52.8%), 둘째 이하가 85명(47.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모는 82명(45.6%)이었고 비취업모는 98명(54.4%)이었으며, 고졸이하가 87명(48.3%), 대졸이상인 93명(51.7%)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80명(44.4%), 36세 이상이 100명(55.6%)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담임교사들 중 20대는 8명(61.5%), 30대 이상 5명(38.5%)이었으며, 2,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9명(69.2%)이었고, 4년제대학 졸업자는 4명(30.8%)이었다. 교육경력은 1~3년 2명(15.3%), 4~5년이 4명(30.8%), 6년 이상이 7명(53.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선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리더십이 유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며(Michell, 1997) 이미 유아기에 또래집단 내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다(김성숙, 2008; 박연경외, 2009). 둘째, 보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 중 만 5세 유아는 더 어린 유아들에 비해 의사표현능력이 우수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여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리더십 행동이나 정서조절전략을 포착하기가 어린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표 1 유아 및 어머니, 교사의 일반적 특성

(N=180)

변인	항목	빈도	백분율(%)	
유아	성별	남	97	53.9
		여	83	46.1
	출생순위	첫째	95	52.8
		둘째 이하	85	47.2
어머니	취업	취업	82	45.6
		비취업	98	54.4
	학력	고졸 이하	87	48.3
		대졸 이상	93	51.7
	연령	35세 이하	80	44.4
		36세 이상	100	55.6
교사	학력	2,3년제대학 졸	9	69.2
		4년제대학 졸	4	30.8
	교육경력	1~3년	2	15.3
		4~5년	4	30.8
		6년 이상	7	53.9
	연령	20대	2	15.3
30대		4	30.8	

2. 연구도구

1) 유아 리더십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리더십 척도는 유아 리더십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근거로 박성아(2010)가 제작한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받아준다' 같이 친사회성, '교사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앞장서 따르는 편이다'와 같이 주도성,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 한다'와 같이 의사결정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참고 기다린다'와 같이 성취감의 4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척도는 유아의 평소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각 유아의 리더십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담임교사는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평소 행동이 '매우 그렇다'면 5점으로 '전혀 아니다'면 1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형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척도에서 각 유아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 범위는 친

사회성이 6-30, 주도성은 4-20, 의사결정능력은 3-15, 그리고 성취감은 5-25로 총 18-80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유아가 획득한 평균점수는 영역별로 ‘친사회성’이 20.77점(표준편차 4.075), ‘주도성’이 12.57점(표준편차3.102), ‘의사결정능력’이 9.51점(표준편차 2.344), ‘성취감’이 17.82점(표준편차 3.07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 리더십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하위영역에 따라 각각 .59, .87, .87, .7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60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훈육방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훈육방식 척도는 Clazada와 Eyberg(2002)의 PSD(Parenting Style and Dimension)를 번안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이동희(2003)의 22문항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아이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준다’와 같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긍정적 훈육을 의미하는 논리적 설명,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가 한다’와 같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훈육을 의미하는 강압적 체벌, ‘아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도 내버려 둔다’와 같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무관심을 의미하는 방임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평소 자녀를 훈육하는 자신의 방식을 검토하여 각 문항을 평정하는데 각 문항의 내용이 어머니의 평소 자녀 훈육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4점 Likert형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어머니가 획득할 수 있는 점수 범위는 논리적 설명이 6-24, 강압적 체벌은 10-40, 그리고 방임은 6-24점으로 총22-88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어머니가 획득한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논리적 설명 23.32점(표준편차 3.473), 강압적 체벌 25.47점(표준편차 5.419), 방임 11.26점(표준편차 4.196)이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하위영역에 따라 각각 .75, .79, .4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을 검사하기 위해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과 Hanish(1993)가 제작한 The Children’s Coping Strategies Checklist 를 번안하여 유아용으로 재구성한 서혜린(2006)의 27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제 해결 혹은 감정해소의 목적으로 다른 유아에게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공격전략, 타인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우는 등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감정발산전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거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대처전략, 문제 상황을 피하거나 타인의 정서적 위로, 지원을 바라는 회피 및 지원전략, 특정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무 전략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유아의 평소 정서적 조절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학급 상황에서 정서조절전략을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담임교사는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정서조절행동을 고려하여 '항상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응답할 수 있다. 이 척도에서 각 유아의 획득할 수 있는 점수 범위는 공격 전략이 6-30, 감정발산전략은 6-30점, 긍정적 대처전략은 6-30, 회피 및 지원전략 3-15, 지원전략이 3-15, 무 전략이 3-15점으로 총 27-135점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유아의 획득한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공격전략 11.83점(표준편차 5.106), 감정발산전략 14.29점(표준편차 5.360), 긍정적 대처전략 15.97점(표준편차 4.724), 회피 및 지원전략 9.49점(표준편차 2.532), 지원전략 7.17점(표준편차 2.525), 무 전략 5.17(표준편차 1.500)점이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하위영역에 따라 각각 .92, .93, .89, .87, .84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을 구하기 위해 먼저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기관 중 본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8개 보육기관을 선정하고 8개 보육기관의 13개 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의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통해 어머니들께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정의 유아 200명과 그들의 어머니 20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보조자가 선정된 각 보육기관을 방문하여 5세 반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함께 교사가 평정해야 할 척도인 유아 리더십 척도와 유아 정서조절전략 척도의 구성과 응답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각 학급의 5세 유아 수만큼 담임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연구보조자는 교사에게 어머니가 평정해야 할 훈육방식 척도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하고 회수해주기를 부탁하였다. 완성된 교사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연구자에게 최종 전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배부한 설문지 척도별 각 200부는 모두 회수되어 설문지 회수율은 100%였다. 그러나 이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한 척도별 각 180부씩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 12.0)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문제 1의 유아와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 리더십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유아 리더십,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 r 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인 유아 리더십에 대한 유아와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유아 리더십의 차이

조사대상 유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아의 리더십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유아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t=-2.59, p<.01$)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주도성($t=-2.71, p<.01$)과 의사결정 능력($t=-2.01, p<.05$)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가 차이가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리더십 점수를 더 높게 획득하였으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리더십이 더 강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주도성과 의사결정능력에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 간 리더십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첫째아와 둘째 이상아들의 리더십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유아의 특성에 따른 유아 리더십 차이

유아 리더십 특성	친사회성		주도성		의사결정능력		성취감		총점		
	M(SD)	t	M(SD)	t	M(SD)	t	M(SD)	t	M(SD)	t	
성별	남	3.40(.80)		3.00(.80)		3.07(.79)		3.46(.60)		3.27(.59)	
	여	3.53(.50)	-1.34	3.30(.72)	-2.71**	3.29(.76)	-2.01*	3.68(.61)	-2.58	3.48(.52)	-2.59**
출생 순위	첫째	3.39(.55)		3.17(.79)		3.23(.73)		3.56(.61)		3.36(.57)	
	둘째		-1.94		.00		.28		-.74		-.94
	이하	3.55(.79)		3.17(.73)		3.20(.79)		3.63(.59)		3.44(.53)	

*p<.05, **p<.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유아 리더십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게($t=-2.01, p<.01$)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주도성 영역에서 취업모 유아와 비취업모 유아 집단 간 유의미가 차이($t=2.38, p<.05$)가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보다 리더십 점수를 저 높게 획득하였으며 이는 취업모의 유아가 비취업모의 유아에 비해 리더십이 더 우수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주도성 면에서 취업모 유아가 비취업모 유아보다 더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아의 리더십 차이를 살펴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의사결정 능력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21, p<.05$). 이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유아가 고졸 이하 어머니 유아보다 의사결정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3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유아 리더십 차이

유아 리더십 어머니 특성	친사회성		주도성		의사결정능력		성취감		총점		
	M(SD)	t	M(SD)	t	M(SD)	t	M(SD)	t	M(SD)	t	
취 업	유	3.54(.57)		3.29(.76)		3.29(.77)		3.66(.62)		3.48(.57)	
	무	3.42(.79)	1.20	3.02(.74)	2.38*	3.13(.74)	1.40	3.52(.56)	1.51	3.31(.52)	2.01*
학 력	고졸 이하	3.42(.59)		3.08(.71)		3.09(.76)		3.56(.63)		3.33(.56)	
	대졸 이상	3.59(.76)	-1.22	3.26(.80)	-1.59	3.34(.74)	-2.21*	3.63(.56)	-.85	3.47(.54)	-1.74

*p<.05

2. 유아 리더십과 어머니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의 관계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r 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상관관계

		유아 리더십	친사회성	주도성	의사결정능력	성취감	전 체
		변인					
훈육 방식	논리적 설명		-.011	.105	.137	.058	.076
	강압적 체벌		-.039	-.070	.009	-.090	-.063
	방 입		-.077	-.025	.011	-.037	-.048
정서 조절 전략	공격전략		-.447***	-.303***	-.250***	-.349***	-.430***
	감정발산전략		-.206**	-.255***	-.221**	-.327***	-.306***
	긍정적 대처전략		.459***	.557***	.496***	.503***	.613***
	회피 및 지원전략		-.108	-.107	-.022	-.146	-.124
	지원전략		.008	.185***	.138	.101	.121
	무 전략		-.043	-.338	-.327	-.197	-.252***

* $p < .05$, ** $p < .01$, *** $p < .001$

우선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훈육방식의 3가지 하위영역과 유아 리더십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 리더십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표 4는 논리적 설명 방식의 훈육이 유아 리더십과 정적 관계($r = .076$, $p > .05$)의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반면 강압적 체벌 및 방입은 유아리더십과 부적 관계($r = -.063$, $p > .05$; $r = -.048$, $p > .05$)의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격 전략과 감정발산전략은 유아 리더십 전체와의 상관에서 각각 $r = -.430$ ($p < .001$), $r = -.306$ ($p < .001$)로 부적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더십의 4가지 하위 영역들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전략은 하위영역들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리더십 전체 점수와 부적 관계($r = -.252$ ($p < .001$))가 있었다.

반면 긍정적 대처전략은 유아 리더십과 상당히 강한 정적 상관($r = .613$ ($p < .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십의 4가지 하위 영역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

여 주었다. 또한 회피 및 지원 전략은 유아 리더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유아 리더십과 부적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전략으로 공격전략, 감정발산전략, 혹은 무전략을 활용하는 유아일수록 리더십이 낮은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긍정적 대처전략을 활용하는 유아들은 강한 리더십을 보여 줄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유아의 일반적 특성(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학력, 취업),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유아의 특성(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특성(학력, 취업), 어머니의 훈육방식의 3개 하위영역,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5개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아 리더십에 대한 추정 회귀모형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5에 의하면 유아리더십 전체에 대한 회귀계수들 중 유의미한 것으로 추출된 독립변인은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 4가지와 유아 성별로서 이 변인들의 회귀계수의 유의확률이 모두 .05보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베타계수로 본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긍정적 대처전략이 가장 크고 다음이 지원전략, 유아성별, 공격전략, 회피지원전략이었다. 이들 중 긍정적 대처전략은 유아리더십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원전략, 유아성별, 공격전략, 회피지원전략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유의하였으며($F=28.86, p<.001$) 유아 리더십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설명력 ($R^2=.509$)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 리더십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F
유아 리더십 전체	상수	3.001		15.560***	.509	28.86***
	긍정적 대처전략	.467	.651	9.760***		
	회피지원전략	-.097	-.145	-2.529*		
	지원전략	-.132	-.198	-3.214**		
	공격전략	-.104	-.159	-2.514*		
	유아성별(남아)	-.126	-.113	-2.019*		
친사회성	상수	3.573		14.426***	.329	27.78***
	공격전략	-.261	-.321	-4.601***		
	긍정적 대처전략	.359	.403	5.274***		
	지원전략	-.219	-.265	-3.804***		
주도성	상수	3.013		9.462***	.408	29.17***
	긍정적 대처전략	.497	.506	7.842***		
	회피지원전략	-.174	-.189	-3.155**		
	유아성별	-.269	-.175	-2.95**		
의사결정능력	무 전략	-.184	-.179	-2.760**	.350	22.80***
	상수	3.158		9.289***		
	긍정적 대처전략	.399	.404	5.945***		
	무 전략	-.220	-.214	-3.169**		
	유아성별(남아)	-.264	-.172	-2.757**		
성취감	감정발산전략	-.124	-.145	-2.256**	.342	29.50***
	상수	3.262		16.848***		
	긍정적 대처전략	.338	.437	6.858***		
	감정발산전략	-.183	-.271	-4.232***		
	유아성별(남아)	-.235	.194	-3.113**		

*p<.05, **p<.01, ***p<.001

주: β 계수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마지막 단계 산출값임.

이러한 정서조절전략들 중 긍정적 대처전략을 더 잘 사용할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강할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회피지원 전략, 지원전략, 그리고 공격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아일수록 리더십이 약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리더십을 약 51%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 리더십의 5개 하위 영역에 대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먼저 친사회성 영역에서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긍정적 대처전략, 공격전략, 지원전략으로 이 중 긍정적 대처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공격전략과 지원전략이었다. 또한 긍정적 지원전략은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공격전략과 지

원전략은 음의 방향으로 유아 리더십에 영향으로 미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독립변인이 유아리더십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3% ($R^2=.329$, $F=27.78$,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성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긍정적 대처전략, 회피지원전략, 무전략, 성별로 이 중 긍정적 대처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유아성별, 무전략과 회피지원전략이었다. 또한 긍정적 지원전략은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3개 변인은 음의 방향으로 유아 리더십에 영향으로 미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독립변인이 유아리더십을 설명하는 정도는 41% ($R^2=.408$, $F=29.17$,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능력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긍정적 대처전략, 무전략, 감정발산전략, 유아성별로 이 중 긍정적 대처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유아성별, 무전략과 감정발산전략이었다. 또한 긍정적 지원전략은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3개 변인은 음의 방향으로 유아 리더십에 영향으로 미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독립변인이 유아리더십을 설명하는 정도는 35% ($R^2=.350$, $F=22.80$,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의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긍정적 대처전략, 감정발산전략, 유아성별로 이 중 긍정적 대처전략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유아성별과 감정발산전략이었다. 또한 긍정적 지원전략은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개 변인은 음의 방향으로 유아 리더십에 영향으로 미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독립변인이 유아리더십을 설명하는 정도는 34% ($R^2=.342$, $F=29.50$,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유아의 리더십의 차이와 이들 변인들이 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아기의 리더십 경험이 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고 후기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기초가 되므로,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의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리더십을 가진 유아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할 수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 유아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리더십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 리더십의 하위영역 평균점수와 총점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 및 학력에 따른 유아 리더십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주도성과 의사결정 능력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리더십 점수를 더 높게 획득하였으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리더십이 더 강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주도성과 의사결정 능력에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고인숙, 2010; 김기영, 2005; 김진혜, 2009; 문혁준, 2010; 서기남, 2009; Lisa, 2000)과 일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에게 더 높은 공감능력을 갖고 있으며(고인숙, 2010, 재인용),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문혁준, 2010, 재인용), 한편, 평정자인 교사가 남아와 여아를 평가할 때 갖는 편파성이나 성 고정관념이 평정에 반영되어 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서기남, 2009, 재인용). 또한 첫째 아와 둘째이하에 따른 리더십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리더십과 친사회적 행동 및 기질과의 연구(박성아, 2010)에서 리더십과 출생순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출산을 저하로 인한 외동이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실상 출생순위의 의미가 퇴색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박성아(2010)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 리더십의 하위영역 평균점수와 총점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유아 리더십 차이를 살펴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주도성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조성과 사회성에서 발달의 차이를 보인 유신희(198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 원인으로 취업모는 직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줌으로써(Umberson & Gove, 1989) 모-자녀간의 적절한 상호작용법이 발달되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아 리더십 차이를 살펴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의사결정 능력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유아가 고졸 이하 어머니 유아보다 의사결정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셀프 리더십 차이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박미숙

(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리더인 아동들은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가정의 자극환경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김순자(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 원인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에게 제공해 주는 자극 내용 즉 물리적 환경과 놀이자료, 그리고 자녀의 발달을 위한 자극이나 언어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유아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취업모의 유아 집단이 비 취업모의 유아 집단보다 리더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 리더십의 상관관계는 어머니의 훈육방식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하위요인과 유아 리더십 하위요인 간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 리더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유아 리더십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리더그룹과 비 리더그룹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은미(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원인은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Piaget의 전 조작적 사고기로써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보이는 시기이며(조복희, 2007), 어머니의 훈육방식은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녀에게 통제를 가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신체적 처벌 혹은 방임을 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행동을 선택할 때 추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다. 유아 리더십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등이 내면화되어 스스로 반성적인 사고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든 연령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달 단계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이소희외, 2009)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지 혹은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단일개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유아 리더십 척도 문항들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인지가 본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아 리더십에 있어서 어머니의 훈육방식과 상관관계의 일반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 시 과학적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여 재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 리더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과 유아 리더십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력과 대인관계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최남례(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원인은 정서조절전략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나 수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이소희 외, 2009), 정서조절전략과

리더십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 정서조절전략의 하위 영역인 '공격전략', '감정발산전략', 리더십 하위영역인 '친사회성', '주도성', '의사결정능력', '성취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긍정적 대처전략'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참여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가 개선되었으며, 종결 후 3개월까지 유지되었다는 정문자, 김진이, 김태은, 김수자(200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 원인으로 정서조절 전략을 잘 활용할수록 또래간의 지위가 높고 또래관계의 성공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유능성도 높다는 연구(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유아에게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공격전략'이나 타인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우는 '감정발산전략'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거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때 유아 리더십과 상관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유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훈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유아 리더십은 어머니의 훈육방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들에서는 대상과 연령이 다른 연구대상을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 중 '긍정적 대처전략'을 더 잘 사용할수록 유아의 리더십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회피지원 전략', '지원전략', '공격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남아일 경우 리더십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 리더십 하위영역과 총점 전체에서 일부 독립변인들만의 모델 설명력(R²)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모델이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친사회성은 유아가 '공격전략'과 '지원전략'을 사용할수록 약해지고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도성은 남아이면서 '회피지원 전략'과 '무 전략'을 사용할수록 약해지고,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능력은 남아이면서 '무 전략'과 '감정발산전략'을 사용할수록 약해지고,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은 남아이면서 '감정발산전략'을 사용할수록 약해지고, '긍정적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교육기관의 주요 요소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이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유아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

를 이용한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어머니 특성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본지역과 표본크기를 확대하고 심층면접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 리더십 척도와 훈육방식 척도들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척도들이 유아 리더십이나 부모 훈육방식을 측정하면서도 다소 상이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 리더십 척도와 어머니 훈육방식 척도의 몇 가지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소개된 척도들을 이용하여 유아의 리더십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해 정확하고 손쉽게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연구 결과를 비교·논의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 리더십과 어머니의 훈육방식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척도의 구성 및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 리더십과 어머니의 훈육방식간의 의미 있는 관계성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유아 및 어머니 특성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이 유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유아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기보다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 교사 등 학교환경과 또래관계 관련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참 고 문 헌

- 김복희(2006). 농촌지역유아의 공동체 리더십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선(2004). 긍정적 유아 리더의 특성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숙(2008). 유아 리더십 유형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자(2001).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리더십간의 관계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 6권 2호**, 5-23.
- 김진혜(2009). 아버지의 놀이참여 및 놀이성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미순(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2009).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2)**, 57~69.
- (2010). 취학전 남아와 여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기질,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35-46.
- 박미숙(2008). 유아의 셀프 리더십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아(2010). 유아의 리더십, 친사회적 행동 및 기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경, 황혜정(2009). 유아 리더십의 유형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9(4)**, 281-308.
- 박현정(2008). 만 3세 유아를 위한 리더십 교육 효과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기남(2009).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혜린(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린, 이영(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 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

-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33-56.
- 유신희(1986).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동희(2003). 유아의 기질, 부모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소희(2009). 유아 리더십 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 이은미(2005). 유아 리더십과 부모 양육태도 관계 분석.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학위청구논문.
- 장영숙, 황윤세(2009). 교사평정용 유아 리더십 측정도구 개발. **유아교육연구**, 29(4), 5-22.
- 조복희(2007). **아동발달**. 교육과학사.
- Barrett, L. F., & Gross, J. J. (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5), 1418-1438.
- Eisenberg, N., Cumberiand, A., & Spinar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Fu, V. R. (1979).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Gardner, H. H, & Campos. J. J.(1982). (송기동 역). 서울; 북스넛.
- Goleman, D., Boyatzis, R., & Mckee, A.(2002). *Primal leadership*. Boston : Little, Brown.
- Lisa C, Bohlin(2000). Determinabts of young children's leadership and dominance strategies during pl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diana, Bloomington.
- Mitchell, A. (1997). Reflections on early childhood leadership development: Finding your own path. In Kagan, S. L., & Bowman, B. T.(ed), *Leadership in early care and education*. Washington, DC: NAEYC,.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1992). *Antisocial boys*. OR: Castalia.
- Underwood, M, K.(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3, 610-634
- Stogdill, R. M.(1974). *Handbook of Leadership: A Survey of theory Research*. N. Y :

The Free Press.

Slukin, A. M., & Smith, P, K. (1997). Two approach to the concept of dominance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48*, 917-923.

Umberson, D, & Gove, W. R(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Yukl, G. A.(1989). Leadership in Organization(2nd ed.). New jersey: Prentice-Hal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s mother's discipline style,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preschooler's leadership. The subjects were 180 preschoolers who were 5 years old and their mothers live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program of SPS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score of subcategory and the total score of leadership according to the gender of preschooler and mother's employment and her educational background.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from the birth order of preschooler. (2) A correlation was not found between mother's discipline style and preschooler's leadership, but th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howed up between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nd preschooler's leadership. (3) The leadership of preschoolers who use positive coping strategies of a sub-area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ppeared strong. And the leadership appeared low with a boy who uses avoidant & supportive strategies, supportive strategies, aggressive strategies and venting strategies more often. Furthermore, the model of explanatory adequacy (R^2) of some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average scores of subcategory and the total score of leadership was confirmed to b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model.

Key Words: mother's discipline style, preschooler's leadership,
preschooler's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